

신라 흥륜사 위치관련 기사 검토

Investigation of the Descriptions about Heungryun-Temple(Built in the Shilla Period) in the Ancient Books

저자 (Authors)	Lee Keun-jik
출처 (Source)	신라문화 20 , 2002.8, 79-97(19 pages) 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20 , 2002.8, 79-97(19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107352
APA Style	(2002). 신라 흥륜사 위치관련 기사 검토. 신라문화, 20, 79-9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30 13:08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신라 흥륜사 위치관련 기사 검토

李 根 直*

<目 次>

- | | |
|--------------------|--------------------------|
| I. 머리 말 | III. 조선시대 문집과 『신증동국여지승람』 |
| II.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 IV. 맺 음 말 |

[한글 논문요약] 흥륜사의 위치가 혼란스럽게 된 것은 1910년대 경주지역에 있는 신라시대 절터들을 일본인들이 조사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그들은 경주시 사정동285-6번지일원의 전영묘사지를 흥륜사지로 단정짓게 된다. 그러나 1976년 영묘사명의 와당이 전영묘사지 일원에서 수 점이 수습되면서부터 흥륜사지 및 영묘사지 위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흥륜사지로 불리웠던 전영묘사지는 寺名을 되찾게 되었으나, 흥륜사지의 위치를 확인하는 노력은 없었다. 다만 “미추왕릉은 흥륜사의 동쪽에 있다”라고 하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의존하여 흥륜사의 위치를 경주공업고등학교일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고려 및 조선전기의 관련 기사들에 등장하는 미추왕릉 및 금교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현 경주공업고등학교일원이 흥륜사지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영문 논문요약] It have been confused that where Heungryun-Temple was built at since the Japanese scholars investigated the temples of Shilla in Gyongju. At that time they concluded that Heungryun-Temple was built at the street number 295-6(the area or address the present day), Sajung-dong, Gyongju but it had been suspected since the tiles pressed the letters “靈廟之寺” on were found there at 1976 and then we have come to know where Youngmyo-Temple was built at. But we still didn't know where Heunryun-Temple was built at as before and nobody tried to know it. There is the only record(that is “the tomb of King Meechoo is to the east of Heungryun-Temple”) about Hungryun-Temple in Samgook-Sagi, so we just assumed that Heungryun-Temple was built around Gyongju technical high school(the area or address in the present day). Therefore this paper try to prove that Heungryun-Temple was built around Gyongju technical high school through reseaching comprehensively the historial records about the tomb of King Meechoo, Geum-bridge and so on.

[논문 주제어] 미추왕릉 · 금교 · 객사 · 일명사지(逸名寺址)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I. 머리말

경주의 흥륜사는 신라 최초의 가람으로서 그 위치는 문헌자료에 의할 경우 신라 王城의 서편에 해당된다. 이 점은 中國 洛陽의 白馬寺와 같다. 백마사 역시 흥륜사와 같이 後漢 都城의 서편에 위치하여 西域으로부터 전래되어온 불교를 받아들인 후 창건된 최초의 사찰이기 때문이다. 즉, 흥륜사와 백마사는 後漢과 新羅에 있어 佛敎初傳의 聖地로 서역 및 고구려로부터 불교가 전래되는 교통로상에서 왕성으로 들어서는 첫 관문에 해당되어 방향성과 장소 그 자체가 불교전래의 역사적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흥륜사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지 등에서 확인되는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경주지역에서 확인되는 寺址의 寺名을 추정해 온 연구는 주목된다.¹⁾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주지역에 있는 다수의 逸名 寺址 가운데 정확한 사명이 확인된 것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혹은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지에 등장하는 寺址관련 기록들이 특정 유적을 기준으로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가르키고 있는 지역 일원에는 다수의 일명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국유사』에서 嚴莊寺는 ‘王城西里’²⁾ 虎願寺는 ‘創寺於西川邊’³⁾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동일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해당 지역인 월성 서편과 서천변 일대에는 현재 모두 8개소의 사지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증거가 없는 한 비정 그 자체가 곤란해진다.(<그림 1> 참조)

또한 일부 사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문자기와와 경우 간혹 사명을 추정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기도 하나⁴⁾ 동일한 문자기와가 여러 사지에서 동시에 출토되고 있어 역시 적극적인 증빙자료는 되지 못한다. 예컨대, 皇龍寺銘은 황룡사와 남산의 보리사에서⁵⁾, 昌林寺銘은 남산의 창림사지와 천관사에서⁶⁾ 각각 출토되었다. 때문에 조선시대

1) 諸鹿央雄, 『新羅寺蹟考』, 경주인쇄소, 1916 ; 濱田耕作·梅原末治, 『新羅古瓦の研究』, 京都帝國大學, 1934 ; 大坂金太郎, 『慶州に於ける新羅廢寺址の寺名推定に就て』, 『朝鮮』 197호, 조선총독부, 1937 ; 田中俊明, 『慶州新羅廢寺考(1)~(3)』, 『堺女子短期大學紀要』 23號·24號·27號, 堺女子短期大學, 1988, 1989, 1992.

2) 『삼국유사』 권 제3 흥법제3 아도기라조.

3) 『삼국유사』 권 제5 신주제6 김현감호조.

4) 朝鮮總督府, 『慶州南山の佛蹟』, 1940, p. 65 ; 문명대, 『신라 사방불의 기원과 신인사(남산탑곡마에 불)의 사방불』, 『한국사연구』 18, 한국사연구회, 1977, p. 73.

5)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와전』(도록), 2000, p. 365 ; 박홍국, 『경주지방에서 출토된 문자명와』, 『전국 대학생활술연구발표논문집』 제5집, 고려대 학도호국단, 1980, p. 103.

까지 법등이 이어지고 있었던 사찰들에 한정해서 각종 지리지와 조선후기에 제작된 ‘慶州府圖’ 등을 통해 위치 비정이 가능한 실정이고 그 이전에 폐사된 사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증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경주지역에 남아 있는 사지의 사명을 추정해 가는 일은 단순한 것이 아니며 문헌 및 고고학 자료들을 모두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본고는 그 가운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륜사의 위치와 관련된 기사를 검토하면서 관련 유적인 전미추왕릉(E) 및 寺址의 문제 그리고 오늘날 홍륜사로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전영묘사지(H)⁸⁾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홍륜사의 위치뿐만 아니라 향후 경주지역 사지의 사명을 추정해 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Ⅱ.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1. 홍륜사 위치관련 기사

홍륜사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관련기록은 『삼국유사』 紀異第一 味鄒王 竹葉軍條와 興法第三 阿道基羅條에 남아 있다. 이 두 기록은 홍륜사지 위치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오래된 것임에는 분명하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고려 중기의 경주지역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⁹⁾ 그러나 홍륜사는 진흥왕 6년(545)에 창건된 이후 이동된 적이 없으며, 위 내용들이 기록된 시기는 홍륜사가 폐사되는 15세기 이전에 해당되므로 사료를 신뢰함에 있어서 문제시 될 내용은 없다. 다만 홍륜사의 위치를 결정짓는 미추왕릉과 금교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관련 기록은 다음과 같다.

-
- 6) 朝鮮總督府, 『慶州南山の佛蹟』, 1940, p. 13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천관사지발굴조사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회의자료」, 2001.
- 7) 李燦, 『韓國의 古地圖』, 汎友社, 1991 ; 영남대박물관, 『한국의 옛지도』(도판편), 1998, p. 145; 경북대출판부, 『동여비고』, 1998 등에 소개되고 있다.
- 8) 본문에서는 현재 국가에서 지정한 사적 제15호인 사정동의 ‘경주홍륜사지’이자 현재 사찰이 건립되어 있는 천경림 홍륜사는 전영묘사지(H)로, 추정홍륜사지인 경주공업고등학교일원은 전홍륜사(F)로 표기함.
- 9) 미추왕 죽엽군조의 완성시기를 『삼국유사』를 찬술되는 13세기말이라는 견해가 있다(신종원, 『신라초기불교사연구』, 민족사, 1992, p. 83). 또한 아도기라조에 포함되어 있는 ‘아도본비’의 작성시기는 110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창호, 「삼국유사에 실린 아도본비의 작성시기」 『경주사학』 20집, 경주사학회, 2001, p. 12).

- 가. 味鄒王陵은 홍륜사 동쪽에 있다. (『삼국유사』 기이제일 미추왕 죽엽군조)
 나. “첫째는 金橋의 동쪽 天鏡林이다”(지금의 홍륜사이다. 금교는 西川에 있는 교량을 말하는데, 향간에는 잘못 전하여 松橋라고 부르기도 한다. 홍륜사는 아도가 처음 그 터를 정하였는데, 중간에 廢하였다가 법흥왕대인 丁未年(527)에 이르러 절을 짓기 시작하여 乙卯年(535)에 크게 열렸고 眞興王代에 완공되었다)
 (『삼국유사』 홍법제삼 아도기라조)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홍륜사의 서쪽에는 西川상의 교량인 금교 또는 송교가 있으며, 반대편인 홍륜사 동쪽에는 제13대 미추왕릉이 있다”는 것이다. 즉, 홍륜사는 서천의 금교와 미추왕릉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홍륜사의 탑돌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金現과 虎女의 이야기가¹⁰⁾ 서천변과 西山인 仙桃山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홍륜사가 이들로부터 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산 기슭에 살고 있던 虎女는 왕성으로 진입하는 이동로상에서 서천을 건너서 있는 홍륜사에 들어가 탑돌이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홍륜사의 위치를 결정하고 있는 두 유적인 미추왕릉과 금교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현재 전미추왕릉(E)은 경주시 황남동의 大陵苑內에 전해오고 있으나, 금교 유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諸鹿央雄이 1910년대 서천상에서 교량지로 추정되는 석재들을 당시의 석공들이 옮겨서 다른 교량의 석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어¹¹⁾ 그 위치가 금교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나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릉원내의 전미추왕릉은 연구자들이 경주공업고등학교일원을 홍륜사지로 인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미추왕릉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기록된 바와 같이 284년에 조영된¹²⁾ 미추왕릉이 맞느냐 하는 점이다. 만일 전미추왕릉이 미추왕릉이 아닐 경우 현재의 전미추왕릉을 기준으로 홍륜사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 전미추왕릉의 문제

고고학계의 연구성과를 고려할 경우, 적석목곽분 가운데 단일원분의 성립을 3세기 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먼저 전미추왕릉의 역사적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0) 『삼국유사』 감통 제7 김현감호조.

11) 諸鹿央雄, 『新羅寺蹟考』, 경주인쇄소, 1916, p. 1.

12) 冬十月 王薨 葬大陵 一云竹長陵(『삼국사기』 신라본기 미추니사금 23년조).

이를 위해서는 전미추왕릉의 피장자에 대한 진위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밝히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전미추왕릉은 적석목곽분들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황남동고분군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봉분 높이 13m, 봉분 직경 57m로 봉분 높이 13m, 봉분 직경 47m인 天馬塚과 비슷한 규모를 가졌다. 이러한 표면상의 특징은 전미추왕릉의 墓制가 대릉원내의 다른 대형분들과 마찬가지로 積石木槨墳이며, 규모로 보아 피장자의 신분은 최상위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왕 또는 왕족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석목곽분의 발생시기와 미추왕릉의 조영시기인 3세기말이 일치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古新羅期 古墳의 경주지역 墓制는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木棺墓 → 木槨墓 → 積石木槨墳 → 橫穴式石室墳이다. 이들 묘제의 변천과정에 대한 편년에서 김원룡은 미추왕의 장례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23년 겨울 10월에 왕이 돌아가시니 ‘大陵’에 장사지냈다”로 기록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경주지역에서 적석목곽분이라는 독특한 묘제를 한 고총고분이 등장하는 시기를 3세기말로 보았다. 즉,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미추왕릉을 처음으로 ‘대릉에 장사지냈다’고 하는 것은 경주분지에서 김씨 왕들에 의해 적석목곽분인 고총고분이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¹³⁾

그러나 적석목곽분의 출현시기를 두고 김원룡처럼 60~70년대의 연구자들은 3세기 말부터 4세기 전반기로 보는 반면, 80년대 이후의 국내 및 일본학계의 연구결과는 4세기 중엽~5세기 전반으로 내려보는 경향이 강하다.¹⁴⁾ 즉,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기록된 미추왕릉 조영시기와 고고학계의 연구결과는 50~150년 정도의 시간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을 그대로 따를 경우 전미추왕릉은 미추왕릉이 아니며, 재위기간을 감안할 경우 미추왕릉은 적석목곽분 이전시기의 묘제인 목곽묘로 소형분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부 상고기의 연대를 수정하고자 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신라 상고기의 각 왕들의 재위기간을 일부 하향 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혹자는 미추왕을 ‘大陵’에 장사지냈다는 표현은 기존의 왕릉에 비해 큰 왕릉이 출현했음을 의미한다고 보아 미추왕릉을 적석목곽분의 출현시기로 설정한 뒤 미추왕의 재위기간을 오히려 고고학계의 연구성과에 의거하여 4세기 중엽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¹⁵⁾ 이러한 견해의 이면

13) 김원룡,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1986, pp. 201·211.

14) 이종선, 『고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2000, p. 41 「별표 1」 적석목곽분 편년대비표 참조.

15) 적석목곽분의 출현시기를 4세기 전반기로 본 최병현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이부오, 「신라초기 기년문제에 대한 재고찰」, 『선사와 고대』 13집, 한국고대학회, 1999, p. 248). 같은 맥락에서 최병현 역시 3세기말이라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며, 미추왕은 4세기대의 인물이었으나 어떤 필요성으로 인하여 김씨왕조에 의해 소급되어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최병현,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1992, p. 380).

에 전미추왕릉의 존재가 인지되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그런데 최병현의 견해에 의하면, 적석목곽분 가운데 단일원분의 경우 98호분과 같은 대형일수록 시기는 빠르고 시기가 내려올수록 최상위 모형의 경우에 있어 각부 구조의 규모가 축소되고 세부구조가 생략되거나 간략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봉분의 크기는 축소되어 원형으로부터 이탈되는 퇴화과정을 견고 있다고 한다.¹⁶⁾ 이 견해에 의하면, 전미추왕릉은 천마총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천마총을 5세기말 6세기 전후로 보고 있듯이¹⁷⁾ 전미추왕릉 역시 그 시기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서 살핀 바의 내용을 요약하면, 신라사상의 실재했던 왕으로서 미추왕의 존재를 그대로 믿는다면, 3세기말 경주분지의 묘제는 봉분이 전혀 남아 있지 않는 목곽묘단계이므로 미추왕릉은 사실상 찾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大陵’이라는 표현 또한 역사적 실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전미추왕릉은 비록 발굴을 하지는 않았지만 규모로 미루어 보아 미추왕의 재위기간인 3세기말이 아니라 6세기 전후의 적석목곽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 내용과 고고학적 상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미추왕릉에 국한하지 않고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23대 법흥왕이전에 장지가 기록된 전혁거세왕릉·전남해왕릉·전유리왕릉·전탈해왕릉·전파사왕릉도 마찬가지이다.¹⁸⁾

한편, 이처럼 문헌과 고고학적 상황이 일치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그 동안 고고학계에서는 눌지왕 19년(435)조에서 확인되는 기사를 확대 해석하여 전미추왕릉의 묘제와 규모는 3세기말의 고고학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후대의 개축 또는 개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19년 봄 정월에 큰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2월에 歷代의 園陵을 修葺하였다. 여름 4월에 始祖廟에 祭祀를 지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19년조)

강인구는 먼저 2월 부분을 ‘역대 왕릉에 새로이 封土를 입혔다’로 해석한 후 이를 토대로 눌지왕이전의 18대에 이르는 왕과 왕비들의 능 30여기를 오늘날과 같은 외형을 가진 고총고분으로 개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¹⁹⁾ 따라서 대릉원을 중

16) 최병현,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1992, pp. 328~329.

17) 이종선, 『고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2000, p. 41 「별표1」 적석목곽분 편년대비표 참조.

18) 이근직, 「신라 왕릉관계 기사의 검토」 『경주사학』 5집, 동국대학교 국사학회, 1986.

심으로 하는 경주분지내 155기의 대형 고총고분에는 박씨와 석씨 그리고 김씨의 초기 왕릉들이 혼재하여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였다.²⁰⁾ 신경철은 목관묘와 목곽묘만 있던 경주분지에 435년에 이르러 비로소 적석목곽분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²¹⁾ 이 경우 그 이전시기의 왕릉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최병현은 원래 미추왕릉은 목곽묘 단계로서 봉분의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151년 이후인 435년에 와서 정변으로 왕위에 오른 눌지왕이 내물계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전 시기의 역대 김씨 내물계의 직계 조상묘들에 대해 당시의 묘제인 적석목곽분과 같은 외형으로 수축케하는 과정에서 포함되었다는 것이다.²²⁾

결과적으로 강인구와 최병현의 견해는 미추왕릉이 적석목곽분일 가능성을 높게 한다. 그러나 위 기사는 정월의 대풍과 陵園의 수습 그리고 뒤이은 시조묘에서의 제사를 동일한 사건의 연속으로 해석해야 된다.²³⁾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의 기사만을 취하여 온 기왕의 견해는 그 자체 많은 모순점을 내포하게 된다.²⁴⁾ 따라서 전미추왕릉의 피장자 진위문제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기록된 미추왕의 실존연대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3. 전미추왕릉의 역사적 성격

우리는 여기서 경주분지 고분군내에 존재하는 30여기의 대형분 가운데 왜 106호분만 피장자가 미추왕이라는 분명한 전승과정을 지키고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황남동고분군·노서동고분군·노동동고분군은 대체로 마립간기 김씨 왕족들의 묘역으로 추정되고 있다.²⁵⁾ 그런데 높이 20m전후의 초대형분 해당하는 98호분·119호

19) 강인구, 『삼국시대 분구묘연구』, 영남대출판부, 1984, pp. 161~162.

20) 강인구, 「신라왕릉의 재검토」, 『동방학지』 41,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4 (『고분연구』, 학연문화사, 2000, p. 418에 재수록).

21) 신경철, 「古式鑑子考」, 『부대사학』 9집, 부산대학교 사학회, 1985, p. 37.

22) 최병현, 『신라고분연구』, 일지사, 1992, pp. 431~433 ; 이희준, 「경주 황남대총의 연대」, 『영남고고학』 17호, 영남고고학회, 1995, pp. 66~67.

23) 이근직, 「신라 왕릉관계 기사의 검토」, 『경주사학』 5집, 동국대학교 국사학회, 1986, p. 103. 그리고 수습정도에 대해서는 최병현의 견해와 같은 입장을 견지했으나, 최근의 연구성과를 고려하면 대풍피해에 대한 보수작업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4) 김창호, 「경주 황남동 100호분의 재검토」, 『한국상고사학보』 8호, 한국상고사학회, 1991, pp. 87~88 ; 이은석, 「경주 황남대총 구조에 관한 일고찰」, 『고고역사학지』 15집, 동아대학교 박물관, 1999, pp. 109~110.

25) 최병현, 「신라의 성장과 신라고분」, 『한국고대국가 형성시기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 85.

분·125호분·130호분·134호분 조차도 피장자에 대한 전승과정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중형급인 106호분은 미추왕릉으로 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왜 모두 잊혀졌는데 김씨로서 최초의 왕위에 오른 미추왕의 능만을 경주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은, 대릉원내의 전미추왕릉이 미추왕의 사망연대인 3세기 말과는 무관한 대형의 적석목곽분이지만 『삼국유사』 기이제1 미추왕 죽엽군에 기록된 미추왕릉임을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이 설득력을 갖는다면 전미추왕릉과 동서방향을 이루고 있는 경주공업고등학교일원의 사지가 흥륜사지일 가능성은 높아진다.

한편,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국사기』 편찬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라에서는 진흥왕 6년(545) 가을 7월에 ‘國史’를 편찬하자는 이찬 異斯夫의 건의를 받아들인 왕이 대아찬 居柒夫 등에게 명하여 널리 文士를 모집하여 국사를 편찬케 하였다. 즉, 진흥왕 이전에는 국사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때 편찬된 국사의 내용이 왕실과 귀족의 이해를 균형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는 하나²⁶⁾ 어느 시기까지 소급되어 기록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신라의 건국연대를 고구려와 백제보다 이른 시기로 올려놓거나²⁷⁾ 신라의 건국 주체를 고조선의 유민으로 서술함으로써 신라의 역사적 전통을 끌어올리려 하고 있음은²⁸⁾ 진흥왕대의 ‘국사’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원형이 되었다기 보다는 삼국통일 이후 통일왕조로서의 위상에 맞는 역사서를 편찬할 당시에 기년이 조정되는 등의 2차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점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次次雄·麻立干 등 상고기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면서 8세기 전반의 인물인 김대문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음에서²⁹⁾ 고신라기에 관한 역사서 부족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8세기 전반에 이르러 비로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가까운 역사적 체계가 갖추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에 통일을 합리화하고 중대왕권을 뒷받침하기 위

26) 박성희, 「고대 삼국의 사서편찬에 대한 재검토」 『진단학보』 88호, 진단학회, 1999, p. 37.

27) 김광수는 70년 정도 상승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광수, 「신라 상고세계의 재구성 시도」 『동양학』 3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3, p. 374). 채회국 역시 신라의 건국 연대가 60여년 올라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 『삼국사기』 신라본기 자체에 인위적인 가공이 가해지고 있다고 하였다(채회국, 「신라의 건국 연대와 초기발전」 『조선고대 및 중세초기사 연구』, 사회과학연구소, 1992, p. 258).

28) 정구복, 「삼국사기 해제」 『역주삼국사기 1』(감교원문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p. 536.

29) ① 次次雄 或云 慈充 金大問云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 尙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者爲慈充 (『삼국사기』 신라본기 남해차차웅) ② 金大問云 麻立者 方言爲概也 概謂誠操 准位而置 則王概爲主 臣概列於下 因以名之(『삼국사기』 신라본기 놀지마립간).

해 새로운 역사서가 편찬되었으리라는 점³⁰⁾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고려초에 편찬된 『舊三國史』³¹⁾와 이들 사서를 저본으로 새로운 자료들을 追記하여 편찬한 김부식의 『삼국사기』(1145)에 이르기까지의 편찬과정에서 추가적인 사료의 변형 또는 보완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즉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와 시대의 추이에 따른 사회적 환경 및 역사인식의 변화 등이 각 시대마다 累層的으로 사서편찬 과정에 개입하여 史實을 왜곡시켰을 개연성이 크다. 예컨대, 왕릉 및 성씨관련 기사는 통일신라 말 또는 고려초의 인식이 역으로 소급되어 시조인 혁거세거서간부터 기록되어 기원전부터 성씨를 사용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³²⁾

그 결과 이처럼 문헌의 관련 내용과 고고학의 연구성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편찬과정에 대한 천착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신라 초기 기록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제한적이기는 하나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삼국사기』 법흥왕이전의 왕의 장지관련 기록을 보면 朴·昔·金 三姓 始祖王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관련기사가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왜 다른 왕들의 경우 장지관련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데, 하필 기록이 남아 있는 왕들의 경우 삼성시조에 국한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또한 신라본기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 시조 혁거세거서간부터 통일초 어느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왕들의 장지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통일기에 이르면 사서편찬 과정에서 왕들의 장지를 기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라본기를 참고할 경우 경주분지내의 왕릉들은 장지기록에서 제외되었으며 경주분지가 아닌 산록으로 이동하여 조영된 법흥왕부터 그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평면적으로 받아들여 ‘법흥왕부터 장지기록이 시작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은 법흥왕의 장지를 ‘哀公寺北’으로 표현한 점에서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법흥왕이 薨去하는 540년에는 신라 왕경에 사찰이 아직 건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라 최초의 사찰은 법흥왕 사후 5년 뒤인 진흥왕 6년(545)에 창건된 흥륜사임이 분명

30) 이기동, 「고대국가의 역사인식」 『한국사론』 6 (한국사의 의식과 서술), 국사편찬위원회, 1983, p. 13.

31) 정구복, 「고려 초기의 『三國史』 편찬에 대한 일고」 『국사관논총』 45집, 국사편찬위원회, 1993.

32) 6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등장하는 姓氏(이순근, 「신라시대 성씨 취득과 그 의미」 『한국사론』 6, 서울대 국사학회, 1980, p. 15)를 소급하여 혁거세거서간의 성을 朴氏로 기록하고 있다. 또한 탈해니사금 9년(65)에 김씨 시조인 金闕智가 鷄林에서 탄강하였는데, 25년 뒤인 파사니사금 즉위년(80)조에 왕비는 史省夫人 金氏이며 許婁葛文王의 딸로 표현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허루갈문왕은 김씨이며, 김알지보다 연장자가 되어 김알지가 김씨시조라는 기록은 허구가 된다. 이처럼 비록 그러한 인물들이 실재했다 하더라도 성씨를 위와 같이 기록하고 있음은 후대의 인위적인 복선이 내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다. 그런 까닭에 당시에 범흥왕의 장지를 기록하였다면 진평왕처럼 해당지역의 ‘地名’ 또는 선덕여왕처럼 ‘山名’, 진덕여왕처럼 ‘部名’ 등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후대에 창건된 것이 분명한 ‘哀公寺’를 기준으로 장지를 기록하고 있음은, 애공사 창건 이후 어느 시기에 이르러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 장지관련 내용이 소급되어 기록되었음을 의미한다.

같은 관점에서 미추왕릉의 장지를 언급한 ‘大陵’ 역시 구체성이 결여된 표현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후대의 필요에 의해 소급되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³³⁾ 그 시기는 대체로 신라 하대 또는 고려초일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의 전미추왕릉은 중대에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혜공왕대에 이르러 唐의 五廟制를 개정하면서 신문왕대 이래로 지속된 太祖大王을 대신하여 미추왕이 金姓始祖의 자격으로 오묘의 首位로 모셔지기 시작한 것과³⁴⁾ 아울러 미추왕릉을 大廟라 칭했다는³⁵⁾ 점이 주목되기 때문이다.³⁶⁾ 즉 신라중대에 이르러 전대의 역사를 새롭게 편찬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김씨 시조로 알려진 闕智³⁷⁾ 또는 少昊金天氏³⁸⁾가 아닌 미추왕을 실질적인 金姓始祖로 결정하면서부터 미추왕릉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미추왕릉을 대표라 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는 王陵이 곧 廟였기 때문이다. 즉, 8세기 중엽에 이르러 미추왕릉은 3세기말의 고고학적 상황과 무관하게 高塚古墳 가운데 지정되었고 곧이어 왕실에 의해 大廟로 追崇된 것이다. 따라서 5~6세기의 적석목곽분이 3세기말의 미추왕릉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 후 미추왕릉은 신라 중대 이래로 고정되어 『삼국유사』의 미추왕 죽엽군조에서 “홍륜사 동쪽에 있다”라고 기록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전승되고 있다.

4. 금교의 위치

금교의 위치는 현재 알 수 없으나, 조선 정조 22년(1798)에 그려진 ‘集慶殿舊基圖’에서³⁹⁾ 서천을 건너던 모량교의 위치가 확인되고 있어⁴⁰⁾ 참고가 된다. 모량교의 위치는

33) 이근직, 「신라 왕릉관계 기사의 검토」 『경주사학』 5집, 동국대 국사학회, 1986, pp. 101~105.

34) 至第三十六代惠恭王 始定五廟 以味鄒王爲金姓始祖(『삼국사기』 권 제32 잡지1 제사).

35) 非未鄒之靈…與三山同祀而不墜 躋秩于五陵之上 稱大廟云(『삼국유사』 기이제일 미추왕 죽엽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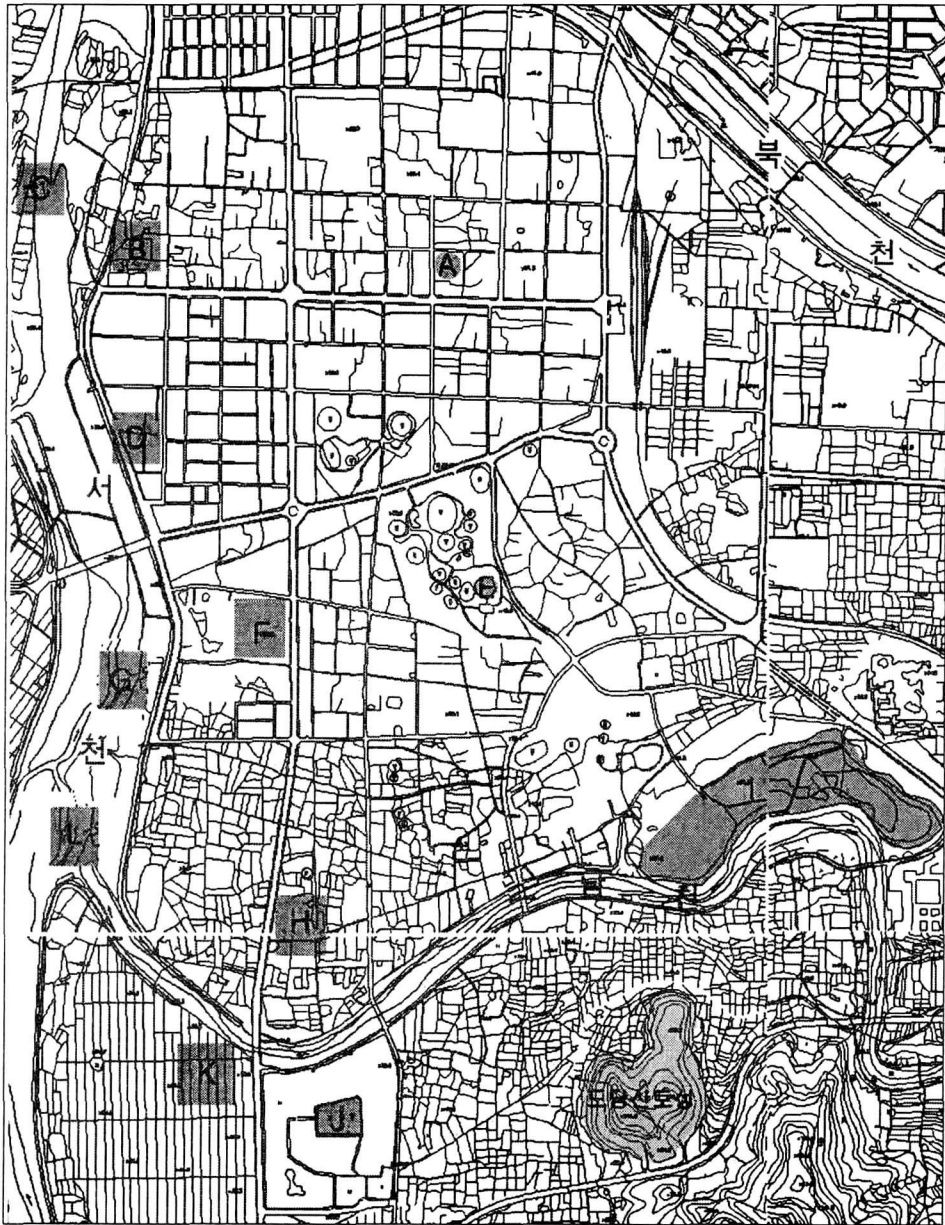
36) 채미하, 「신라 혜공왕대 오묘제의 개정」 『한국사연구』 108, 한국사연구회, 2000, pp. 41~45.

37) 『삼국사기』 신라본기 탈해니사금 9년조 및 『삼국유사』 권 1 김알지 탈해왕조 등에서 확인된다.

38) 이문기, 「신라 김씨 왕실의 少昊金天氏 출자관념의 표방과 변화」 『역사교육논집』 23·24집, 역사교육학회, pp. 653~656.

39) 이춘희, 「집경전구기도」 『국학자료』 6집, 장서각, 1972.

40) 경주문화원, 『경주의 옛 사진집』, 1994, p. 11.



<그림 1> 월성서편 신라시대 절터 분포 현황

- | | | | |
|-------------|-------------|-------------|-------------|
| A : 객사(동경관) | B : 전삼랑사지 | C : 일명사지(a) | D : 전남항사지 |
| E : 전미추왕릉 | F : 전홍륜사지 | G : 추정영홍사지 | H : 전영묘사지 |
| I : 월성 | J : 전오릉·알영정 | K : 일명사지(b) | L : 일명사지(c) |

오늘날의 서천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진흥왕 10년(549) 양나라 사신과 양나라에 유학하고 있던 신라 승려 각덕이 함께 불사리를 가지고 돌아오는데, 진흥왕이 백관으로 하여금 홍륜사 앞길에서 맞이하게 하였다는⁴¹⁾ 점과 당시의 가람배치가 남북으로 건물배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홍륜사 남문 앞의 길은 동서로 놓인 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경주공업고등학교일원이 홍륜사지라면 금교는 조선시대의 모량교와 현재의 서천교보다는 조금 남쪽으로 이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홍륜사 앞길은 전홍륜사지와 추정영흥사(G)를 동서로 연결시키고 있었을 것이며 그 서쪽 끝에 금교가 놓여 있었을 것이다.

추정영흥사지(G)는 1980년에 처음으로 확인되어 경주사적관리사무소에 의해 발굴되었으며⁴²⁾, 사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석조물들은 국립경주박물관 경내 남쪽 정원으로 옮겨져 전시되고 있다. 그 후 영흥사지는 전홍륜사지(F)로 인식되던 1980년 이전⁴³⁾과 달리 새롭게 추정되기 시작하였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펴낸 『경주유적지도』에 의해 표기되기에 이른다.⁴⁴⁾ 그 결과 추정영흥사지는 대중국 교통로상에서 볼 때 금교를 지나 왕성으로 들어 올 경우 처음 맞이하는 사찰이 되며 전홍륜사지(F)와 인접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홍륜사로도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즉, 전홍륜사지(F)가 홍륜사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접하고 있는 두 사지 모두 추정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지의 창건연대를 밝히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다만 발굴과정에서 확인된 석조물들은 이중주좌가 마련된 원형의 초석들과⁴⁵⁾ 건물 계단 좌우에 설치되는 소맷돌 1매 그리고 옥개석의 층급받침이 3단인 석탑재 등인데 모두 8~9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창건연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삼국유사』 아도기라조에서 영흥사의 위치를 언급한 三川岐는⁴⁶⁾ 의미로 보아 南川과 西川 또는 麟川과 大川(毛良川)이 합류하는 지점 부근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추정영흥사지(G)가 자리한 곳을 삼천기로 보기에는 거리가 먼 까닭에 국립경주박물관의 추정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추정영흥사지(G)는 아도화상이 머물렀던 곳에 창건된 ‘王城西里’의 업장사이거나 홍륜사와 인연이 깊었던 김현이 서천변에 창

41)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0년조.

42)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14호, 문화재관리국, 1981, p. 286.

43) 전홍륜사지인 경주공업고등학교일원은 일제시대이래 경주역사가 있던 자리이다(고유섭, 『한국답과의 연구』 (동화예술선서), 동화출판공사, 1975, p. 53).

44) 국립경주박물관·경주시, 『경주유적지도』, 1997, p. 36.

45) 東潮·田中俊明, 『韓國の古代遺蹟』(新羅篇), 中央公論社, 1988, p. 160에 소개된 전영흥사지의 사진에는 초석이 완연하게 확인되고 있다.

46) 二曰三川岐(今永興寺. 與興輪開同代).

건한 호원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영흥사지는 남천과 서천이 합류하는 곳에 최근에 발견된 일명사지(c) 부근으로 추정된다.⁴⁷⁾

Ⅲ. 조선시대 문집과 『신증동국여지승람』

1. 흥륜사

고려시대 흥륜사에 관한 저간의 사정은 고종 31년(1244)에 眞靜國師 天頤에 의해 쓰여진 興輪寺大鍾銘并序에서 확인된다. 이 내용에 의하면, 흥륜사는 1244년 이전에 오랑개에 의해 불타버린 절터에 다시 불당을 세우고 범종을 주조하였다고 한다.⁴⁸⁾ 따라서 흥륜사는 6년전인 1238년 몽고군의 경주 침입시 황룡사와 같이⁴⁹⁾ 화재를 입어 사찰이 전소된 듯하다. 이 점은 최근 흥륜사지의 일부분으로 추정되는 경주공업고등학교 부지(F) 서남쪽 모서리를 발굴한 결과 통일신라시대 와당과 함께 고려시대 건물지가 노출됨으로서 가능성이 재확인되기도 하였다.⁵⁰⁾ 그러나 몽고침입으로 인한 전소 후 6년만에 세워진 건물은 이전과 같은 규모의 가람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조선전기인 15세기에 이르면 이미 흥륜사는 폐허만 남게 되었다.

조선전기의 흥륜사 상황에 대해서는 조선 세조때의 매월당 김시습이 남긴 『遊金鰲錄』과 성종대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의 고적조가 자세하게 알려준다. 김시습은 경주에 머무는 6년동안 신라시대의 유적과 사찰들을 답사하였는데, 이미 마을과 보리밭으로 변해버린 흥륜사를 둘러본 다음 아래와 같이 노래하였다.

라. 보리 점점 빼어나서 옛 터전을 들렀으니	麥秀漸漸擁故墟
사인의 공업이 결국 어디 있던 말인가	舍人功業竟何居
지금까지 닭과 개는 재죽에 떠들었으니	至今鷄犬喧齋粥

47) 최민희선생(경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에 의하면, 수년전 일명사지(L) 일원에서 이중의 원형주좌가 마련된 초석 수점이 확인되어 사진촬영을 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다. 물론 현재까지 정식으로 보고된 바는 없으나 『삼국유사』 기록과 일치하는 지점이어서 사지의 존재와 더불어 영흥사지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48) 허홍식, 『진정국사와 호산록』, 민족사, 1995, pp. 274~277.

49) ① 蒙兵至東京燒黃龍寺塔(『고려사』 권 제23 세가23 고종 25년 윤4월) ② 高宗十六年戊戌冬月西山兵火塔寺丈六殿宇皆災(『삼국유사』 탐상 제4 황룡사구층탑조).

50)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경주시, 『경주시 사정동 459-9번지 수습발굴조사보고서』, 2001, pp. 24~25.

그것이 곧 당시의 불경을 외우는 것인지	便是當時誦佛書
돌구유 困을 만나 鑿辭도 뜨거운데	石槽遇困鑿辭炎
전각의 남은 터는 마을로 변했구나	殿閣餘墟化里閭
풍속 남아 중에 주고 중이 도로 속세에 주니	俗古施僧僧施俗
윤회하며 덕 값음도 또한 싫어함이 없으라	輪回報德亦無嫌

(김시습, 「홍륜사지」, 『매월당시집』제12권)

마. 홍륜사는 경주부 남쪽 2리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 고적조)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당시의 사찰현황에 대해서는 두 항목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는데, 법등이 이어지고 있는 사찰은 ‘佛宇’조에 기록하고 이미 廢寺가 되어 遺址만 남기고 있는 사찰들은 ‘古蹟’조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홍륜사는 고적조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치를 “경주부 남쪽 2리에 있다”라 하였다.

조선전기의 상황을 기록한 위 내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된다. 하나는 두 기록 모두 홍륜사가 이미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 점은 당시까지도 법등을 이어가고 있던 까닭에 불우조에 포함된 영묘사지 관련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 홍륜사의 위치에 대한 또 다른 추론이 가능하다. 다음은 홍륜사가 고적조에 속해 있으면서 경주부와의 거리를 '남쪽 2리'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미추왕릉과 금교의 소재를 통해서 추정이 가능하던 홍륜사의 위치에 대해 조선시대 경주 읍성내의 객사를 기준으로 하는⁵¹⁾ 또 하나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따라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공간에 홍륜사가 위치하게 된다. 특히 객사와의 거리는 서천과 전미 추왕릉 사이에 다수의 사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먼저 경주부와의 거리를 살펴보자. 이때 경주부의 기준점은 읍성내의 객사였던 東京館(A)이 된다. 동경관의 정확한 위치는 경주시 동부동 현 경주경찰서 동편 舊教育廳 자리이다.⁵²⁾ 1950년초 동경관을 헐어 동편으로 이전시키고 교육청이 들어선 것이다. 이곳으로부터 남쪽 2리의 거리에 있는 절터는 어느 곳인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현재 동경관의 남쪽에서 확인되는 절터를 중심으로 도상에서 직선거리를 확인해보면, 동경관과 홍륜사지로 추정되는 경주공업고등학교(F)까지 1.2km, 동경관으로부터 추정영흥사지(G)까지는 1.5km, 동경관으로부터 전영묘사지(H)까지는 2km이다. 그런데 1리는 360步의 거리를 말한다. 1보는 6척이며, 대체로 1척은 30cm내외이다. 따라서 1보는 180cm내외이

51) 객사는 관용 여행자들이 머무는 숙소이기도 하지만 거리를 잴 때는 기준점이 된다(안길정, 『관아 이야기』 1권, 사계절출판사, 2000, p. 105).

52) 황재현, 「동경관의 어제와 오늘」 『경주문화』 창간호, 경주문화원, 1995, p. 98.

며, 1리는 648m내외이다. 이 경우 2리는 약 1,296m내외로 경주공업고등학교일원(F)이 가장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에서 동쪽과 남쪽 5리에 있다고 명기된 유적들을 찾아보면, 문천(남천)·남정·알영정(J)·오릉(J)·월성(I) 등이다. 이들은 모두 남천변에 있는 유적들로서 현재 그 위치가 정확하다. 따라서 남천변에 인접해 있는 전영묘사지(H)가 흥륜사라면 ‘興輪寺在府南五里’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2. 영묘사

오늘날 천경림 흥륜사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전영묘사지(H)의 위치와 관련하여 확인되고 있는 고려시대의 『삼국유사』 및 조선전기의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바. 신라의 京都 내에는 일곱 곳의 절터가 있는데…다섯째는 沙川尾에 있다(지금의 靈妙寺인데 善德王 을미년에 비로소 개창되었다) (『삼국유사』 흥법제삼 아도기 라조)

사. 영묘사는 경주부 서쪽 5리에 있다. 당나라 정관 6년에 신라의 선덕왕이 창건하였다. 불전은 3층으로서 건물구조의 기본형태가 특이하였다. 신라때의 불전이 한 둘이 아니었으나, 다른 것은 다 무너지고 헐어졌는데, 이 불전만은 홀로 완연하여 어제 세워진 듯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 불우조)

아. 세 조정의 문물은 결국 공이 없지만	三朝文物竟無功
하늘 맑아 구름 한가함은 어제 오늘이 같네	天淨雲閑今古同
지은 지 일천년에 인간 세상 바뀌었고	締構千年人換世
(세운지 이미 9백여년 되었다)	(創已九百餘年)
흥망 백대에 풀만 하늘에 닿을 듯 하여라	興亡百代草連空
월성의 연수에 아지랑이 건렸는데	月城煙樹收殘靄
문수의 잔 물결 가는 기러기 보내누나	蚊水晴波送去鴻
어디가 가장 객의 한을 더할 만한 곳인가	何處最堪添客恨
무너진 담 봄비에 풀이 무성하여라	壞垣春雨草芃芃
(김시습, 「登靈廟寺浮圖-唯一木浮圖獨存」, 『국역매월당집』)	

자. 옛 절이 관도에 접해 있어 우뚝한	
그 높이 만길이나 되겠구나	古刹臨官道巖峩高萬丈
집마루는 구름가는 밑이요 모서리는 해일의 위에도다	棟宇行雲低觚稜海日上

선제는 안개 속에 깃들고 금방은 노을에 숨겨 있다	宿霧栖璇題流霞隱金榜
요사채는 하늘 밖에 열려 있고 풍경소리 공중에 울리는데	綺寮天外開風鐸空中響
황금 빛 부처 몸은 해무리에 더욱 밝다	赫赫金仙軀綵暈光滉朗
사면 벽에는 청홍의 채색으로 인천을 그렸는데	四壁絢青紅人天繪衆象
아름다운 휘장과 일산은 가득하게 모여 있다.	珠幢與寶蓋浸漉集空垧
내 잠시 그 가운데 흘겨보니 그 짜임새가 사람을 미혹하네	我暫窺其中結構迷俯仰
이는 인력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감탄이 절로 난다	謂非人力施感歎起遐想
옛날 선덕이 사신하여 불사를 지나치게 숭상하니	善德昔司晨事佛過崇獎
나무 한 그루에 백금을 허비하고 주춧돌 하나에	
만강을 소모했다	一木費百金一礎捐萬鎰
경영이 이에 이르니 국고가 어찌 온존하리	經營乃至此不恤傾帑藏
부처의 힘을 빌려 불법의 세계를 넓히려니	欲借迦維力普沾世界廣
어찌 원성이 없겠는가 백성의 복리는 안중에도	
없었도다	豈無怨咨聲福利竟(日+莽)曠
병화 천년에도 홀로 우뚝하게 서서 용상을 보호하니	劫火千載餘巋然護龍象
당시의 조시가 모두 비었지만 신기한 그 솜씨는	
칭찬할만 하구나	當時朝市空鬼功嗟可賞
손꼽아 정관년 돌아보며 한 번 손바닥을 두드린다	屈指貞觀年臨風一拊掌

(曹偉, 『靈廟寺』, 『梅溪集』)

차. 구름사다리 타고 최고층까지 돌아 올라라	雲梯回上最高層
자비의 은혜 일찍이 못 본걸 한할 것 없네	莫恨慈恩見未曾
손으로 용마루 잡으니 북두성도 딸만하고	手接飛薨堪摘斗
몸은 어두운 벽 뚫고 가니 노끈으로 묶고파라	身穿暗壁欲縻繩
시름 연기는 침침하여 삼신산이 희미하고	愁煙曖曖迷三島
지는 해는 아름다워 오릉이 말끔하구려	落日亭亭淡五陵
머리 돌려 일천년의 사적을 생각하노니	回首一千年社稷
종소리만 절로 전각의 모서리를 흔드누나	鐘聲只自撼觚稜

(金宗直, 『登靈妙浮圖』, 『佔畢齋集』)

영묘사가 화재로 폐사되는 시기는 조선 중종 10년(1515)이다.⁵³⁾ 따라서 위 내용들은

53) 八百年餘佛殿災 東京舊物返黃埃 人言吾道從茲盛 經閣如何亦共灰(去年十二月 成均館 尊經閣 亦火故及之)(權發(1478~1548), 『慶州靈妙寺災吟』, 『沖齋集』). 위 내용을 보면, 영묘사는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영묘사 화재에 한 해 앞선 12월에 성균관의 존경각이 불탔음을 알 수 있다. 『중종실록』에 의하면 성균관 존경각의 화재는 중종 9년(1514) 12월 2일에 있었다(김원주, 『성덕대왕신종명』 『성덕대왕신종조성기념강연요지문』(12월 14일), 경주박물관회, 1999, p. 21).

영묘사가 법등을 이어가던 시기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위치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부분은 남천의 끝자락을 의미하는 沙川尾·古刹臨官道·月城·蚊水·五陵 등이다. 즉, 사천의 끝과 官道에 임하여 있다는 것은 영묘사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가르키고 있으며, 영묘사에서 바라보이는 월성과 문수 그리고 오름은 영묘사 주변의 역사적 환경을 표현하고 있어 중요하다.

먼저 사천이 남천을 의미하는 것임은 『삼국유사』 원효불기조를⁵⁴⁾ 통해 이미 논증된 바 있다.⁵⁵⁾ 또한 경주지역에서 남천의 모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가운데 八怪의 하나인 ‘蚊川倒沙’는 유명하다.⁵⁶⁾ 따라서 영묘사는 남천의 끝자락이자 서천과 합류하는 지점 그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曹偉(1454~1503)가 언급하고 있는 ‘영묘사가 조선시대의 官道에 임하여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은 앞서 언급한 ‘集慶殿舊基圖’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비록 조위의 생존기간과는 300년 뒤이지만 조선시대 경주지역의 관도는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당시 관도는 경주읍성-건천-영천-대구를 경유하는 것과 경주 내남-봉계-언양읍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집경전구기도’를 참고할 경우 언양으로 향하는 관도는 오름북편에 이르기까지 두 갈래의 길이 확인된다. 먼저 읍성 남문에서 시작된 관도는 봉황대(125호분) 서북편의 종각에 조금 못미쳐 다시 서쪽으로 이어진다.⁵⁷⁾ 서쪽으로 가던 관도는 노서동고분군이 끝나는 지점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 남쪽으로 연결되는데⁵⁸⁾ 그 길이 바로 오름 서북편으로 직결되고 있다.⁵⁹⁾ 다음은 봉황대 서북쪽의 종각으로부터 노동동고분군과 노서동고분군 사이를 지나 황남동을 경유하면서 오름 북편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런데 영묘사지는 오름 북쪽에 있는 교량 북편의 두 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금성로 동편에 위치해 있는 전영묘사지는 당시 두 길의 동편 또는 서편에 위치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처럼 영묘사의 위치에 대한 주변정황은 조선시대의 시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영묘사의 목탑에 올라서면 바로 남쪽으로 인접하여 문천인 남천이 흐르고 그 너머로 오름이 바라보이며, 동쪽으로 고개를 돌릴 경우 월성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알게 된다.⁶⁰⁾ 그런데 전홍륜사지(F)에서는 위와 같은 표현이 불가능하다(그림1 참조).

54) …已自南山來過蚊川橋(沙川 俗云牟川 又蚊川 又橋名榆橋也)…

55) 김원주, 「사적 제15호 홍륜사지는 영묘사지의 잘못」 『천고』 51호, 신라문화동인회, 1983, pp. 3~5.

56) 권오찬, 『신라의 빛』, 경주문화원, 2000, p. 477.

57) 현재 봉황로와 원효로가 만나는 지점이다.

58) 현재 원효로와 서성로가 만나는 지점이다.

59) 현재의 금성로이다.

60) 田中俊明, 「慶州新羅廢寺考(1)」 『堺女子短期大學紀要』 23號, 堺女子短期大學, 1988, p. 36.

IV. 맺음 말

홍륜사의 위치가 혼란스럽게 된 것은 1910년대 경주지역에 있는 신라시대 절터들을 諸鹿央雄이 조사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경주시 사정동 국당리의 전영묘사지(H) 일원을 경주 사람들이 ‘興福員’·‘興輪員’·‘홍륜들’로 부른 까닭에 별다른 의심없이 홍륜들 내의 절터를 홍륜사지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⁶¹⁾ 즉 문헌에 기록된 홍륜사 관련기사에 대한 검토없이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1934년 9월 경주시 사정동 국당리 전영묘사지(H)에서 수습된 신라 와당 가운데 ‘신라의 미소’로 유명한 인면문 와당 역시 홍륜사지 출토로 소개되었다.⁶²⁾ 그 후 영묘사지가 홍륜사지라는 諸鹿央雄의 견해는 中村亮平⁶³⁾·藤島亥治郎⁶⁴⁾·濱田耕作·梅原末治⁶⁵⁾·大坂金太郎⁶⁶⁾·유석우⁶⁷⁾·진홍섭⁶⁸⁾·황수영⁶⁹⁾ 등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의심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 결과 1971년 경주시 사정동 285-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전영묘사지(H)에 사찰을 창건한 뒤 사명을 ‘天鏡林興輪寺’라 칭하게 된다.

그런데 홍륜사지와 영묘사지 위치에 대한 의문 제기는 신라문화동인회 회원들이 1976년부터 영묘사명의 와당을 전영묘사지(H)에서 수습하면서부터이다.⁷⁰⁾ 당시까지만 해도 영묘사지는 그 위치가 미상이거나 서천상의 일명사지(a)가 홍사준에⁷¹⁾ 의해 영묘사지로 주목받는 정도였다. 그런데 홍륜사지로 생각하고 있던 절터에서 1976년 영묘사명의 와당이 출토된 것이다. 따라서 당연한 것이지만 그 후 銘文瓦와 함께 문헌의 영묘사관련 기사를 정리 분석한 다음 영묘사지의 위치 비정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의가 김원주⁷²⁾에 의해 제기되었다. 또한 그는 홍사준이 영묘사지를 추정함에 있어 『삼국유사』의 전불칠처가람에 관한 기사를 중심으로 찾지 않고 15세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 불우조의 ‘府西五里’에 의존한 것은 잘못이라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동

61) 諸鹿央雄, 「新羅寺蹟考」, 경주인쇄소, 1916, p. 1.

62) 大坂金太郎, 「新羅の人面瓦に就いて」, 『朝鮮學報』 65, 天理大 朝鮮學會, 1972, p. 137.

63) 中村亮平, 『慶州之美術』, 藝艸堂, 1929, p. 175.

64) 藤島亥治郎, 『朝鮮建築史論』, 1930, pp. 116~117.

65) 濱田耕作·梅原末治, 『新羅古瓦の研究』, 京都帝國大學, 1934, p. 47.

66) 大坂金太郎, 「慶州に於ける新羅廢寺址の寺名推定に就て」, 『朝鮮』 197호, 조선총독부, 1937, p. 82.

67) 유석우, 『경주시지』, 경주시, 1971, p. 627.

68) 진홍섭, 『경주의 고적』, 열화당, 1975, p. 85.

69) 한국불교연구원, 「홍륜사지」, 『신라의 폐사 I』, 일지사, 1982, p. 59.

70) 김원주, 「사적 제15호 홍륜사지는 영묘사지의 잘못」, 『천고』 51호, 신라문화동인회, 1983, p. 4.

71) 홍사준, 「신라 영묘사지의 추정」, 『고고미술』 제3권 6호(통권23호), 고고미술동인회, 1962.

72) 김원주, 「사적 제15호 홍륜사지는 영묘사지의 잘못」, 『천고』 51호, 신라문화동인회, 1983, pp. 3~5.

안 홍륜사(H)로 전해오던 사지가 영묘사지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 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를 따르고 있으며⁷³⁾, 田中俊明에 의해 기왕의 논의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된 바 있다.⁷⁴⁾

그 결과 1980년대부터는 홍륜사와 미추왕릉의 위치에 관한 기록을 근거로 현 경주공업고등학교일원(F)을 홍륜사지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결론조차 홍륜사의 위치와 관련된 자료들을 정확히 분석한 후에 얻은 것이 아니어서 그 동안 홍륜사 위치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⁷⁵⁾

73) 국립경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도록), 1989, p. 42 ; 이강근, 「경주문화재에 대한 재인식」(신라 최초의 절 홍륜사를 중심으로) 『경주문화』 제4호, 경주문화원, 1998, pp. 60~61 ; 박방룡, 「성덕대왕신종의 내력」 『성덕대왕신종』(종합논고집), 국립경주박물관, 1999, p. 110.

74) 田中俊明, 「慶州新羅廢寺考(1)」 『堺女子短期大學紀要』 23號, 堺女子短期大學, 1988, pp. 7~11.

75) 전영묘사지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을 ‘홍륜들’로 불려오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김복순, 『신증동국여지승람역주-불우~고적-』 『신라문화』 13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6, p. 241).